

2022 06 vol.74

재난안전

Brief

정책 Brief

-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3
• 청주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04
• 증평군, 산사태 예방위한 종합대책 추진	04
• 충북도, 하절기 폭염대비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	05
• 충북도, 집중호우 대비 산지태양광 민·관 합동점검 추진	05
• 충북도, 영농철 불가뭄 피해 대비 장비·예산 총력	06
• 충북도, 출렁다리 안전관리 '흔들' 실태점검	07
• 청주시,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구축...본격 운영	08
•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09
• 보은소방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09
• 충북도, 유·도선, 수상레저 민·관 합동 안전점검	10
• 충주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완료...18개소 시범운영	11
•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 점검신청제' 실시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3
• 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13
• 행안부, 배수펌프장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침수 피해 방지	14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14
•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합동점검팀 운영	15
• 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6
• 우리동네 더운 지역 과학적 데이터로 폭염에 대비한다	17
•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물류창고 화재 해법 찾는다	18
•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한다	19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장마철 감시 강화	20
• 행안부, 악취·가스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감찰 실시	21
• 국지성 호우·태풍 등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	22
•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5
• 대전 동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 실시	25
• 태안군, 생명존중 약국 29개소 운영	25
• 부천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26
• 제주도, 여름철 폭염대비 전담팀 운영...종합대책 추진	27
• 양구,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최소화해 만든	28
• 성북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안전한 도로 만든다	29
• 부여군, 안전사고 예방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30
• 광진구, 스토킹 범죄 예방 안심장비 '남녀' 모두에게 지원	30
• 대구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31
• '정읍시민 안전 보험' 누구나 혜택받아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32
• 서울시 '실시간 수질 감시' 수돗물 관리 강화한다	33
• 군산소방서, 보이는 골목소화기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	33

■ 집필진

배민기 센터장 (043-220-1127)

최신실 연구원 (043-220-1118)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청주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 주요내용

- 청주시는 2일부터 한 달간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65명에 대해 흥덕·상당·청원 경찰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추진
 -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아동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의 11.9%로 확인
 - 아동학대 재학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해 학대 피해 조기 발견과 이에 대한 선제적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극 보호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반복 신고, 수사경력, 사례관리 거부 대상 등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
 - 시는 경찰서별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 등을 확인하고 재학대 및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이번 상반기 점검은 가정방문·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재학대 위험이 발견될 경우 아동의 분리 보호를 검토하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연계

증평군, 산사태 예방위한 종합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충북 증평군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종합대책에 따라 군은 대책 상황실 운영,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대피체계 강화 등 실시
 - 우선 군은 5명으로 구성된 산사태 대책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총괄 지휘할 계획
 - 대책실의 주요 기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취약지역 관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기타 산림재해 대응총괄 등으로 구성
 - 군은 산사태현장 예방단 근로자도 4명 채용해 절개사면 등 지역 내 산사태 취약지 42개소와 임도를 대상으로 지반상태 이상 징후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산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며, 또 마을별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마을 재난방송 및 위험안내문자 발송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한 피해 최소화할 계획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7333>

◆ 일자
2022. 6. 1.

◆ 지자체
증평군

◆ 출처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913>

◆ 일자
2022. 6. 2.

충북도, 하절기 폭염대비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

- 6월 ~ 9월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 운영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폭염에 취약한 거리의 노숙인 보호 실시

- 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 운영
- 현장대응반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 순찰과 응급구호 활동을 전개해 온열질환,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
- 아울러, 추진 기간에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응급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 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 043-220-3034

◆ 일자

2022. 6. 2.

충북도, 집중호우 대비 산지태양광 민·관 합동점검 추진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 중규모 도내 산지태양광 13곳 대상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 집중 호우 등 풍수해 사고에 대비해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도와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500kW초과 3000kW미만의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35곳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태양광 모듈 및 지지대 파손, 인버터 작동 상태, 전력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 토사 유출 방지시설, 발전소 부지 내 지반 침하, 토사유출 여부 등 집중 호우로 인한 경사면 붕괴와 인명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사 유출 및 태양광 패널 지지대 침하 7곳, 배수로 미설치 및 배수로 내 토사 유입이 5곳, 안전 휨스 붕괴가 3곳, 배수로 파손 및 기초 패드 붕괴가 2곳으로 배수로 준설,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또한 토사 유출, 패널 지지대 침하, 안전 휨스 및 기초 패드 붕괴 등으로 재해가 예상되는 발전소는 도, 시군의 관리부서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에너지과

☎ 043-220-3274

◆ 일자

2022. 6. 7.

충북도, 영농철 봄가뭄 피해 대비 장비·예산 총력

-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1개 시군에 675백만원 투입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최근 도내 계속된 무강우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투입 등 가뭄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 5~6월은 본격 영농철로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이나 기상청은 충북 11개 시군의 6개월 평균 강수량이 149.2mm(평년평균:295.5mm, 평년대비:50.5%)로 약한 기상가뭄이 있는 것으로 발표

- 특히 지난 5~6일 일부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6월 중순까지 강수예보가 없어 가뭄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충북도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7천5백만원을 11개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물 부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 양수장비, 호스, 급수차 지원 등에 사용 될 예정

- 또한 농업용수공급 등 가뭄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가뭄대비 농업시설정비사업(23지구 36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6지구, 185억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2지구, 55억원), 가뭄대비 용수 개발사업(수요조사중, 6.8억원) 등 총 31지구 정상 추진

- 이와 함께 5월부터 가뭄, 집중호우 등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재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실시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아울러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동원해 용수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가뭄이 심각해지면 예비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



주관기관

충북도청

문의

충북도청 유기농산과

☎ 043-220-3643

일자

2022. 6. 7.

충북도, 출렁다리 안전관리 ‘흔들’ 실태점검

- 민관 합동점검 참여...도내 18곳 출렁다리 살펴본다 -

○ 주요내용

- 충청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출렁다리(18곳)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 출렁다리는 행락철 관광객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특히 지난 4.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점
 - 이번 점검에는 “충북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며, 시군에서 실시한 전수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안전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안전점검 효과성과 풍수해 대비 총 연장 100m이상 출렁다리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표본 점검
 - * (1일차) 6. 15.(수) 제천 옥순봉(222m)
 - (2일차) 6. 16.(목) 증평 좌구산(230m), 괴산 연하협(134m)
 - 또한 합동 점검단은 바람 등 영향으로 흔들림이 발생하는 구조 특성상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주탑, 케이블, 행어 부식 상태, 바닥 프레임, 앵커리지 등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 안전과 관련되는 바닥데크, 난간 등 부대시설의 안전도 함께 확인
 - 점검 결과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이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전 시군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23

◆ 일자

2022. 6. 7.



청주시,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구축...본격 운영

주요내용

- 청주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확대구축 사업'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 시작
 - 청주시는 총 30억 원(국비 18억 원, 시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약자 보행자보호 시스템, 대중교통 혼잡정보 제공시스템 등 총 8개 분야의 스마트 교통 환경 기반 조성
 - 시는 청주의 대표 재래시장이 육거리 시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등 교통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 스마트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검지선에서 차도로 진입시 경보알람이 송출되고, 시내버스의 혼잡도 정보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
 - 버스 혼잡도 정보는 청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 외에도 주요 교차로 교통량 수집시스템 확대 구축, 하상도로 재난교통관리시스템 연계, 위험도로(산성도로) 돌발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확대 연계, 교차로 LTE기반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8590>

◆ 일자
2022. 6. 12.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주요내용

- 충주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 ※ 단,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 종료
 -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 시는 향후 교통 안전효과 및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안전속도 5030정책 및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부여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보은소방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주요내용

- 충북 보은소방서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빈번한 대형사고의 근원을 차단코자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번 대책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돼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추진
 - 추진사항으로는 필로티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필로티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8841>

◆ 일자
2022. 6. 14.

◆ 지자체
보은군

◆ 출처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124>

◆ 일자
2022. 6. 15.

충북도, 유·도선, 수상레저 민·관 합동 안전점검

-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위해 내수면 안전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의 수상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지난 4월 괴산지역에서 발생한 도선 침수사고 등 도내 유사한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표본점검과 간담회 실시

* (1일차) 6. 21.(화) 충주 수상레저 4곳
(2일차) 6. 22.(수) 괴산 유도선 및 수상레저 4곳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박의 정기중간검사 또는 안전검사 실시 여부, 유도선 안전성, 인명 구조요원 확보 및 보험가입 여부, 정원초과 승선 행위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여부, 선체구조의 안전성 및 구조 장비확보 여부 등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

-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탑승장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실태와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축전지 보관, 소화펌프 관리 등 화재예방과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

■ 지난 4월부터 도, 시·군은 해당지역 내수면 사업장 선박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 하고 있으나, 이번 점검은 타 시군의 사업장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유도선,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시군 담당자간 공유하고,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선박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

- 도는 합동 점검단 관계자들의 총평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도록 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사고유형별 대응체제를 구축해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에는 10월까지 매일 상주 근무를 실시하고, 수상레저 안전캠페인에 대한 홍보 대책도 강구할 예정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22

◆ 일자

2022. 6. 15.

충주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완료...18개소 시범운영

주요내용

- **충주시는 도내 최초로 추위·더위·미세먼지 걱정 없는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올해 2월부터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에 돌입해 5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실시
 - 신설된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버스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냉·난방시스템,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유무선충전기, UV공기살균기, 스마트미러 TV 등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편의시설로서 '문화동 이마트 앞', '칠금동 공용버스터미널 삼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8개소에 설치
 - 특히 승강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능형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이상 음원을 감지하는 음원감지시스템과 비상벨을 통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상 상황에 대해 충주경찰서와 공유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시는 1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사항을 분석·보완해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안착시킬 계획
 -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서기·혹한기·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능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예정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9034>

◆ **일자**
2022. 6. 15.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 점검신청제’ 실시

- 안전사고 예방·관리로 모두가 행복한 충북 실현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오는 8월 추진 예정인 ‘2022 충청북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대진단 기간 내 추진할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도민이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직접 신청해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점검신청제’ 운영
 - ‘주민 점검신청제’는 기존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선정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신청 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를 제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
 - ※ 신청대상은 마을회관·경로당·교량·노후 건축물 등 재난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공할 예정
 -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관할지역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점검대상 시설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
 - 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중인 건물, 소송(분쟁)중인 시설물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점검 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개선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방침
 - 한편, 도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진단 점검 중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 저수지, 출렁다리 등 위험지역에는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해 점검할 예정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 043-220-2422

◆ 일자

2022. 6. 21.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

○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실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 차지
-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 등이 있으며,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하여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



◆ 주관부처
해양경찰청

◆ 문의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032-835-2785

◆ 일자
2022. 6. 2.

행안부, 배수펌프장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침수 피해 방지 - 집중호우 대비 전국 2,306개소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 실시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6월 8일(수)에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 실시

* 지자체 관리 1,297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1,009개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 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로서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 유지
 - 8일 일제 가동 훈련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별로 상황전파, 설비 작동 여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완료
 - 행안부 주관 훈련(6.8.)에서는 집중호우를 가정하여 담당자 현장 응소부터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실시
 - 또한, 최근 배수펌프장 인근 침수 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는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 ※ 훈련 방법 : 가상 메시지 전파(행안부) → 담당자 응소(배수펌프장) → 펌프장 가동 → 결과 보고
-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이고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 수강
-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
- 강의는 온라인 6시간, 집체교육 6시간(1일)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으며 집체교육은 6월 10일에 1회차 진행했으며, 6월 17일에 2회차 진행될 예정
- 특히, 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4

◆ 일자

2022. 6. 7.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문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044-202-8961

◆ 일자

2022. 6. 10.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합동점검팀 운영

- 전국 시설하우스·과수원, 여름철 재해대비 사전점검 실시 -

○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채소·과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팀(4개팀, 8개반 32명,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참여)을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

-지자체가 5.26일부터 6.10일까지 최근 3년간 재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과 1.5ha 이상 농가 14,332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한 결과,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팀이 6.13일부터 6.17일까지 2차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

■ 시설하우스의 경우 저지대 논에 설치된 시설이 많은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한 주변 배수로 점검, 피복 비닐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

-특히 하우스 사이 고랑과 주변 배수로 등에 잡풀이 자라고 영농자재 등이 쌓여있어 집중 호우시 빗물이 역류하여 침수가 잦은 만큼 배수로 내 이물질 제거, 자재 정리 등 사전 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

■ 과수원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과수원 내 침수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낙과, 도복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주시설 정비, 방풍망 설치 여부 등을 점검

-특히 태풍 발생 시 일자형 지주시설 설치 농가에 피해가 크게 발생한 바 있어, 과수원 내 지주시설 결박 및 고정상태 보강, 방풍망 파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지도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또한 합동점검팀은 8월 말까지 주요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지원할 계획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8

◆ 일자

2022. 6. 13.

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배달, 택배기사 안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영상 제공 -

주요내용

- 기상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6월 16일(목)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제공

* 배달, 택배업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누리집

-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므로,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증가

- 이에,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업무 시작 전에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정보를 영상으로 제공

-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폭염, 태풍, 비,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종이며, 영향예보, 특보 등 해당 지역의 위험기상정보와 함께 날씨별 주의사항을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공

※ 여름철 위험기상정보 영상(총 17개): 폭염 6개, 태풍 4개, 비 3개, 강풍 4개

- 배달, 택배업 등 근로자는 업무용 앱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안전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주관부처
기상청

◆ 문의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 02-2181-0268

◆ 일자
2022. 6. 16.



〈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

우리동네 더운 지역 과학적 데이터로 폭염에 대비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난해 여름철 지표 온도 분석하여 '열분포도' 제공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1년도 여름철(6월~9월) 기상 관측 정보를 분석하여 개발한 '열분포도'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제공

- '열분포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전국의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3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균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

* 미국 '랜드셋' 위성영상에서 관측한 가로·세로 30m 해상도의 지표온도

** 수목·초목 등의 식생 분포도, 일사량, 지표의 고도/경사도/경사방향

-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는 '열분포도'를 활용하면 그늘막, 안개 분사기(쿨링 포그) 등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최적의 위치선정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 가능

- 또한, 열이 집중된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무더위 쉼터, 재난취약 계층 현황 정보 등을 접목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폭염 대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행안부는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 정책 추진 시 세부적인 '열분포도'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지난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더웠던 구역을 확인하려면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에서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내부 운영체계(플랫폼) '빅데이터 헤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빅데이터 헤안 :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연계·수집·저장 분석하고 결과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 052-928-8310

▶ 일자
2022. 6. 16.



〈생활안전지도 내 열분포도 표출(전국)〉

법정부, 민관 합동으로 물류창고 화재 해법 찾는다

-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근본 원인진단을 위해「재난원인조사단」 구성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5.23.)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6월 17일(금) 출범하고, 전체회의 개최

- 조사단은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학계·업계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중앙부처, 경기도,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

■ 조사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 중 총괄분과는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이 분과장이 되어 전체적인 운영을 수행할 계획

- ‘사고조사 분과’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류창고 주요 화재의 직·간접 원인조사 및 메타 분석, 피해 확대 과정에 대한 전반적 조사,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

- ‘원인분석 분과’는 기술·공학적 원인 외 제도·정책·관행·행태·의식 등 구조적 문제점 진단,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화재 초기 진압·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

- ‘제도개선 분과’는 그간 물류창고 화재 대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법·제도 등 규제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도출, 근로자 교육·훈련 등 안전문화 개선, 화재 안전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 한편, 조사단 출범에 앞서 6월 9일 전문가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과 분과별 핵심과제 등 조사단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물류창고 대형화재 발생 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점검이 필요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 또한 물류창고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참여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

* 물류창고 수도권 분포현황(21.12월 기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총 4,479개 중 1,988개(44.4%) 수도권 집중(경기도 1,534개, 인천광역시 344개, 서울 110개)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
☎ 044-205-6218

◆ 일자
2022. 6. 17.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설치 지원한다

- 소방설비 30종,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전국 150개소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설치를 지원하여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 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변경)

화재예방강화지구	총 150개소(21.12.31. 기준)
① 시장지역 : 96개소	② 공장·창고 밀집지역 : 4개소
③ 목조건물 밀집지역 : 17개소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21개소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역 : 3개소	⑥ 산업단지 : 2개소
⑦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등이 없는 지역 : 0개소	⑧ 소방관서장 지정 : 7개소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

〈 최근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사례 〉

- ① '22.2.11.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8명 사상 / 21.2.13. 화재 폭발사고 5명 사상
- ② '21.4.14.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화재, 재산피해 65백만원(3개 점포 소실)

-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 예방시설 등의 보강은 예산확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

■ 이에 소방청은 제정된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에 맞춰,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마련

- 지원설비로는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 화재예방과 대응, 피난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비용 지원

- 표준조례안에는 시·도지사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서류 제출과 접수,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설비 설치 후 비용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등 포함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설치된 소방대상물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부지(토지)

- 특히,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설비 등을 직접 설치 가능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018

◆ 일자

2022. 6. 17.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장마철 감시 강화

- 신속 대응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매몰지와 하천수계 정밀 조사 -

○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장마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특별감시팀을 구성하여 6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정밀 조사 실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매몰지 중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훼손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취약 매몰지를 직접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 분석

-특별감시팀은 입지여건, 매몰상태 등이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에 대해 장마 전·후 2회에 걸쳐 현장점검 및 바이러스 오염조사 실시

*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는 1,848곳이며, 이중 작년 8월 장마철 점검 이후 새로 조성된 매몰지 447곳 중에서 선정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즉시 공유할 예정이며, 매몰지 훼손 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이설 또는 소멸 조치토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

■ 또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장마기간 동안 하천과 댐 구역 인근 수계를 집중적으로 감시

-그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19년부터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 등 4개 수계를 중심으로 감시했으나 올해는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남한강과 금강을 추가해 총 6개 수계까지 감시범위 확대

■ 하천 수계 조사는 장마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바이러스 수질 오염 및 야생멧돼지 폐사체 유입 여부 감시

-하천 수계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북한강 등 6개 하천 수계 약 43개 지점에서 하천수 시료와 부유물 등을 채취해 바이러스 오염 여부 분석*

*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발생지역(강원남부·충청 19개 지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존 발생지역(경기·강원북부 24개 지점)에서 시료채취를 하며 분석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

-야생멧돼지 폐사체 유입 감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소양강 등 16개 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육안으로 관찰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계 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사체 제거,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실시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062-949-4344

◆ 일자

2022. 6. 19.

행안부, 약취·가스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감찰 실시

- 고의적인 약취가스 배출 시설물 가차 없이 엄정 처벌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사, 음식물 공장 등 각종 환경시설에서의 약취·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6월 20일(월)부터 4주간 집중 감찰 실시

- 그동안 관계부처에서는 약취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개별 사업장의 약취 통제가 쉽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유독성 가스시설 등의 경우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약취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 및 사용자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044-205-1365

◆ 일자
2022. 6. 19.

〈약취민원 발생 현황〉

[단위 건]



※ 출처: 환경부

- 안전 감찰 내용은 약취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관리실태, 약취기술진단 및 약취검사 전문기관 검사 업무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

■ 고의성이 있는 약취·유독물 배출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부실 사례, 약취 저감 방안 미준수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 기관을 통해서 엄정 처벌 할 예정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차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감찰 결과는 소관 기관에 전파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

국지성 호우 · 태풍 등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

- 중앙119구조본부, 급류 등 특수환경 수난구조과정 운영 -

○ 주요내용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러한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산악·급류 사고에 대비해‘급류 등 수난구조 전문교육과정’ 운영

-장마철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일가족이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하천과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및 구조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 최근 3년 간 하천·바다 구조 건수 및 인원 〉

구 분	사고(구조)건수 (단위: 건)	구조인원 (단위: 명)
2018	13,480	3,996
2019	15,490	4,474
2020	18,174	4,905
2021	18,465	4,926

(출처: 2021 소방청 통계연보)

- 구조대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팀웍을 향상시키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구조대원 15명 참여
- 주요 교육내용은 기초 수리학, 강 읽기 등 급류에 관련된 이론교육과 함께, 급류환경에서의 수영 구조기법, 보트를 이용한 구조훈련과 더불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 훈련으로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특히 헝가리 국제수난출동 등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해외 급류구조 강사과정*을 이수한 우수 교관을 배치하여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

* 미국 콜로라도 급류구조 교육기관(DRI:Dive Rescue International)의 강사과정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특수대응훈련과

☎ 053-712-1126

◆ 일자

2022. 6. 22.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환경부 차관, 시민단체·기업과 안전한 여름나기 위해 아산시 현장 방문 -

○ 주요내용

■ 환경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및 1,710여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추진

* 기후요인(폭염, 홍수 등) 측면의 위험노출이 크고,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를 대상으로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 지원

- 아울러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공

* 실내환경진단(곰팡이 등 6개 환경유해인자 진단), 환경컨설팅 및 진료지원(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

- 33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쿨월, 쿠파이브먼트) 및 창호를 설치하는 실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규모 물길 폭염 쉼터 조성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국고 47.5억 원 지원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2

◆ 일자

2022. 6. 22.

〈 폭염 대응 기반시설 종류 〉

				
① 쿨루프 (건물 옥상)	② 쿨월 (건물 외벽)	③ 쿠파이브먼트 (어린이체험장)	④ 벽면녹화 (아동시설)	⑤ 그린커튼 (다중시설)
				
⑥ 쿠파이브먼트 (시민광장)	⑦ 쿨링포그 (전통시장)	⑧ 쿨링포그 (버스정류장)	⑨ 쿨링 & 클린로드 (도심도로)	

■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기업,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속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 추진

-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 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양산,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 요령**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수), 주식회사 리코(여름용 베개), BGF리테일(간편식), 우리은행(여름용 이불), 현대백화점(서울지역 취약계층 지원), LG헬로비전(폭염대응요령 공익광고 송출)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시원하게 지내기, 물을 자주 마시기, 식중독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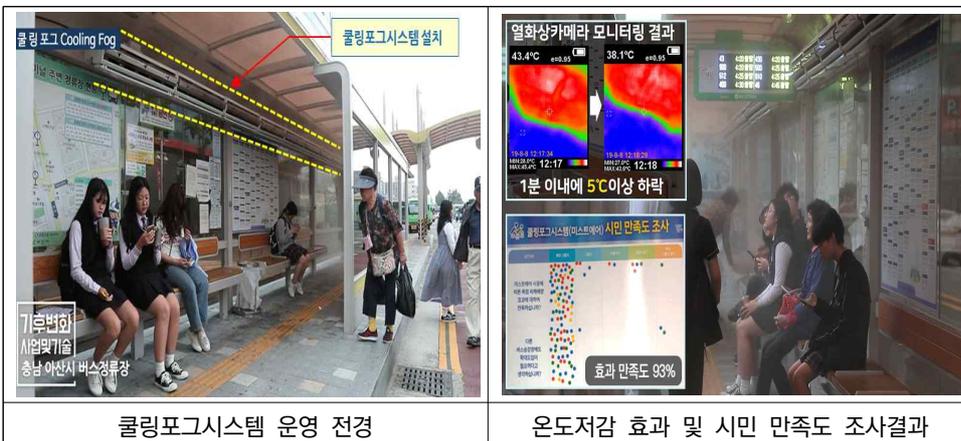
〈취약계층 폭염대응 지원물품〉



- 이와 관련하여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6월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참여 기업과 함께 취약가구에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지자체의 폭염대응 추진상황 점검

- 유제철 차관은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과 함께 지역 내 개별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돕고, 안개분사기(쿨링포그)가 설치된 버스환승센터 등 폭염대응시설 2곳의 운영 상황과 체감 효과 파악

〈창틀에 거치대 설치 후 본체 장착하는 방식(‘21년 홀로어르신 320가구 설치)〉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대전 동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주요내용

- 대전 동구는 6월 한 달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구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대학가 등 인구밀집 지역, 복합터미널·대전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
 - 합동 점검반은 폭우·강풍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고정 상태나 파손·노후화 정도를 점검할 예정이며, 균열이나 부식 등 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 또한 철저히 점검할 계획
 -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이 있는 광고물 발견 시 업주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할 예정

◆ 지자체
대전광역시

◆ 출처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053>

◆ 일자
2022. 6. 7.

태안군, 생명존중 약국 29개소 운영

○ 주요내용

- 충남 태안군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 약국’ 운영
 - 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관내 29개 약국을 생명존중 약국으로 지정하고 자살위기사 발굴 및 센터 연계 관리 등 조치에 나설 계획
 - 생명존중 약국은 약사가 지역주민의 생명지킴이가 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읍 18개소와 안면읍 7개소, 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 각 1개소씩 지정
 - 군은 전문성을 가진 약사가 지역주민의 생명사랑 지킴이 역할 수행에 최적화돼 있다고 보고 지난해 충남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존중 약국 지정
 - 해당 약국에서는 이용자의 자살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우울·불안·자살 관련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또한, 약국 내에 리플릿과 포스터 등 자살예방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용자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정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상담전화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

◆ 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 출처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233>

◆ 일자
2022. 6. 8.

부천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 경기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주차장 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해 시민의 위기관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
- 지난 2021년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도교통부) 개정으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 번호판을 발급, 무인 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긴급자동차가 자동으로 통과 가능
- 이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에 자동으로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시는 현재 관내 긴급자동차(소방 26대, 경찰 77대)의 전용번호판 교체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상가 등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적극 안내할 예정
- 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에는 시에서 제작한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스템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 출처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8_0001900264&cID=14001&pID=14000

◆ 일자

2022. 6. 8.



제주도, 여름철 폭염대비 전담팀 운영...종합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 돌입

- 지난해 폭염으로 제주지역에서 온열질환자 65명(사망자 0명)이 발생했고, 그 중 58명(89%)이 실외에서 나타났으며, 남자가 55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온도가 높은 오후 3~6시에 22명(34%)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제주도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을 웃돌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동안 도민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 먼저, 행정시를 포함한 15개 협업부서로 구성된 폭염 대응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재난 방송 등을 신속히 전파해 폭염 대응 체계 구축

- 또 현장 중심의 폭염 취약계층 예찰·관리활동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5만 2,418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노인돌보미 등 재난도우미 1만 4,366명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

- 코로나19로 이용이 제한됐던 실내 무더위쉼터(484개소)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도 및 행정시(읍면동 포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6월 중 전수 점검을 거쳐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

- 올해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그늘막을 기존 324곳에서 360곳으로 36곳에 추가 설치했으며, 도내 곳곳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할 예정

- 이 밖에 온열질환자 발생 빈도가 높았던 야외 작업장, 밭 작업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방송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폭염을 포함한 각종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생활안전 길라잡이'를 제작해 도내 학교, 행정기관, 재난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

- 아울러, 스마트기기(정보통신기술(ICT) 응급안심서비스, 인공지능(AI) 로봇)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응급상황 대처를 추진 중이며, 독거노인 4650명에게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

- 또한 협업 부서별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 축사 시설개선, 양식장 피해 저감을 위한 고수온 대응 전담반 구성 등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624>

◆ 일자

2022. 6. 9.

양구,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

주요내용

■ 강원 양구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

- 군은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산사태 재난안전망 구축, 산사태 예측 고도화 및 다양한 원인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 조사와 견실한 항구 복구 실현, 교육·홍보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산사태 재난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
- 또 유관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사방댐 3개소에 대한 계류 정비, 1ha 면적의 산지사방 1개소(1ha)에 대한 사면 정비 및 골막이 등 사방 사업도 추진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
- 산사태 예측 고도화 및 다양한 원인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산사태위험지도 V3.0 버전을 구축해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산사태 예측정보 전달체계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또 인위적 훼손지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와 함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땅 밀림 무인 원격감시시스템 시범 운영 및 유지·관리 진행
-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 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실현 분야에서는 산림피해 조사·복구 조사반을 운영해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산지재해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교육·홍보 강화 분야에서는 대상별 교육계획 세분화로 교육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

◆ 지자체
강원도 양구군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787>

◆ 일자
2022. 6. 14.



성북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안전한 도로 만든다

○ 주요내용

■ 서울 성북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보강 작업 진행

-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존의 민원접수와 환경순찰에 따른 파손 시설물 복구작업 위주로 이뤄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의 한계 파악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수요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진행
- 지난 4월 서울시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시책에 맞춰 성북로 4길 66m 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인 보행자용방호울타리 2707m와 도로반사경 11개 등에 대해 세척을 진행해 시인성 증진을 통한 시설물 기능향상과 도시미관 개선
- 성북구는 노후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체를 위한 자재 구매를 위해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통학로 중심으로 1900m 구간의 노후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체와 보강 작업을 진행할 예정



◆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39>

◆ 일자

2022. 6. 14.

부여군, 안전사고 예상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 주요내용

- 충남 부여군은 이달 말까지 부여경찰서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 등 안전사고 예상 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하는 스마트 보안등은 LED 보안등과 블랙박스가 내장된 CCTV 기능을 겸하는 제품으로 24시간 촬영과 1개월간 영상 저장 가능
 - 아울러 보안등으로부터 30m 내에서 와이파이로 내려받아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반 IOT 양방향 점멸기가 부착돼 점멸기에 내장된 통신모뎀으로 정전, 누전, 부점등에 대한 실시간 상태 점검 가능
 - 설치 장소는 부여읍 3곳, 규암면 2곳, 은산면 1곳, 홍산면 2곳, 장암면 1곳, 석성면 2곳, 외산면 2곳 등 총 13개소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할 예정

◆ 지자체
충청남도 부여군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260>

◆ 일자
2022. 6. 15.

광진구, 스토킹 범죄 예방 안심장비 '남녀' 모두에게 지원

○ 주요내용

- 서울 광진구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장비 지원
 - 실제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22년 4월까지 179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었고 이 중 86건이 사건으로 접수되었는데 피해자의 15%가 남성으로 확인
 - 구는 스토킹 등 젠더 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며, 광진경찰서에서 추천한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 및 피해 우려 주민들 중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전월세 임차 50가구를 선정해 안심장비를 지원할 계획
 - 기본으로 지원되는 안심장비는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부재중 외부로부터 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달되는 문열림센서 3가지로 구성
 - 여기에 더해 지원 대상자는 거주환경에 따라 현관문 안전고리, 창문보조 잠금장치, 도어록필름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

◆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714674>

◆ 일자
2022. 6. 17.

(실외보안) 스마트 초인종	(실내보안)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출처 : 광진구청)

대구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주요내용

■ 대구시는 폭염을 대비해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냉방물품 지원

- 노숙인·쪽방생활인·자활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혹서기 특별 보호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보호체계 강화
- 대구시와 구·군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활동을 강화,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정비,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등 무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 진행

■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대상 자별 환경 여건에 맞는 냉방물품 지원

- 노숙인에게 얼음생수, 보양식키트, 넥풍기, 스포츠타올, 이온음료, 쪽방생활인에게 얼음생수, 보양식키트, 선풍기, 여름이불, 아이스박스, 자활근로자에게 선풍기, 냉장고, 넥풍기 등 지원
- 냉장고가 없는 쪽방생활인과 노숙인들에게는 폭염기 3개월 동안 취약계층 주민들이 서로 돕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 케어 시스템'을 활용해 매일 얼음생수 1병을 전달할 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노숙인들의 단체급식 어려움을 고려해 도시락을 제공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들이 폭염기에 기력을 잃지 않도록 월 1~2회 삼계탕팩 등 보양식도 지원할 예정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대구역, 동대구역, 지하철 역사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활동과 긴급구호품 제공 등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에 집중
- 쪽방상담소는 자원봉사자와 쪽방 밀집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묻기, 생필품 제공, 후원 연계 등 현장보호 활동 진행
- 노숙인시설과 무료진료소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거리 노숙인을 위한 야간 잠자리도 운영해 더위를 피해 갈 곳이 없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계획
- 이밖에 광병원 내 무료진료소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 등에 대한 1차 진료와 건강상담, 전염병 예방 안내, 사례관리, 2~3차 병원 연계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폭염 대비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대구광역시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47>

◆ 일자

2022. 6. 17.



(출처 : 쿠키뉴스)

‘정읍시민 안전 보험’ 누구나 혜택받아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주요내용

■ 전북 정읍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

-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
-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
- 보험료는 시민들의 부담 없이 정읍시가 일괄 납부하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 사고, 강도 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감염병, 개 물림 등 13개로 구성
-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

■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도 추가

- 이에 따라 더욱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정읍시민이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
-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접수
- 시는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및 보험료 일괄납부 완료
- 보험기간** 2022. 1. 1. ~ 12. 31. (매년 가입·갱신)
-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익사, 농기계 사망 등
- 보험사**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1577-5939 (사고처리전담 콜센터)
- 청구서류 등 안내 - 공제회 홈페이지 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 기타문의** ☎ 063-539-5494(정읍시청 안전총괄과)

◆ 지자체
전라북도 정읍시

◆ 출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national/1946233.htm>

◆ 일자
2022. 6. 20.

서울시 '실시간 수질 감시' 수돗물 관리 강화한다

○ 주요내용

- 서울시는 20일 전국 최초로 수질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수질 취약지역 민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정보분석 시스템' 본격적으로 운영
 - 서울시는 수질 값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자동 검출해 공무원이 수질 민원에 1시간 내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도입
 - 서울시 내 모든 행정동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525개 수질자동측정기로 1분마다 측정된 수질 값과 다양한 민원, 관로, 공사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동으로 검출
 - 수질자동측정값에 이상이 있거나, 급수구역별로 수질 민원이 일주일에 2건 또는 월 4건 이상 발생하면 그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수도관 세척, 상수도관 교체 등 선제 조치 시행
 - 시는 향후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공급 경로를 추적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요소로 분석을 확대할 방침이며, 축적한 빅데이터를 수질 취약지역 예측과 '우선 관리 대상' 선정 작업 등에 활용할 계획



군산소방서, 보이는 골목소화기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

○ 주요내용

- 전북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흥남동일대 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소화기함*' 16개 설치
 - * 골목길 소화기(함)는 화재 취약지역 주민들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누구든지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 소화기(함)
 - 군산소방서가 그동안 화재 대응을 위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을 꾸준히 설치하여 왔으며 또한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진입로가 협소한 일부 고지대 마을 등은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골목길 소화기함은 투명창이 부착된 전면을 열면 누구나 쉽게 화재 초기 대응에 사용 가능
 - 이와 함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소화전이 없어 화재 초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 골목길에 벽이나 담장에 부착하는 벽면형과 지면에 세울 수 있는 스탠드형 두 가지 형태로 소화기함 1대와 3.3kg 분말소화기 2개로 구성 하였고 군산소방서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설치 위치를 안내해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높일 예정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90>

◆ 일자
2022. 6. 20.

◆ 지자체
전라북도 군산시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77>

◆ 일자
2022. 6. 22.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2022년 6월 CSRI 재난안전 Brief